

저희에게 이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눅 9:48)

제11호 <2007.3>

발행인:이순남 | 편집인:정성철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 전화 02-2650-5703-4 | 팩스 02-2653-8891

♣ 의학전문대학원 소식

◆ 2007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리더십 캠프 개최



-의학과 선배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함께 찍은 사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리더십 캠프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월 5일에서 7일 (월~수)까지 2박 3일 동안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5일부터 6일 오전까지는 신입생 리더십 캠프가, 6일 오후부터 7일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4명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범한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에 대한 기대와 리더십 개발을 향한 강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의학교육실 차장 권복규 교수와 학생부장 양현종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리더십캠프가 시작되었다. 리더십캠프 첫 날에는 '나의 비전 맵핑'이라는 주제로 이화 리더십 최진 강사가 강의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세종리더십 김은경 원장이 '여성 리더십 강의 및 리더십 checking'이란 제목으로, 여성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며 학생들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통해 리더십 스타일을 색깔과 성향으로 8가지로 구분하고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이화리더십개발원 명진숙 강사가 '기독교 리더십 강의 및 여성 리더 사례 연구'를 통해 그룹으로 기독교리더십과 여성리더십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화숙 이화의대 동창회장(20회, 김화 내과원장)

은 의사, 여성,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서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어 권복규 교수는 '내가 되고 싶은 리더'를 주제로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 · 아내, 의사, 의료지도자, 관리자,



사회지도자, 선배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조별로 그림, 만화, 미디어, 연극 등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프로그램 후 촛불 행사에서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음으로써 첫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둘째 날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이귀혜 강사(서울대)가 효과적인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무부장 이경은 교수, 학생부장 양현종 교수, 의학교육실 차장 권복규 교수의 의학전문대학원 학교생활안내, 학사안내 및 수강신청,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그리고 PBL 수업방법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이순남 학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의과대학 재학생 40명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회 소개와 동아리 홍보, 해부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 2007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8일 (수) 의학과 A동 김옥길홀에서 개최되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첫 신입생들을 맞는 이번 입학식에는 신입생 76명과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드러내었다. 입학식 이후에는 기초의학교실 소개 및 교과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마련되었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정 문의 Tel: 02) 2650-5707)

◆ 의과대학 BK21 사업단 발전기금 조성

BK21 사업단 참여 교수 30명 중 26명의 교수가 1차년도 연구업적에 따라 선별 지급한 인센티브를 '의과대학 BK사업단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1년 동안 자산으로 적립되어 참여대학원생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국제학회참가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의과학연구소 소식

◆ 의과학연구소 기자재 확충

의과학연구소에 LAS 3000, Gamma Counter, 조직파쇄기, 초저온 냉동고, 증류수기 2대 등 실험 기자재가 대거 확충되었다.

◆ 연구비 수혜현황 (2006/03/01~2007/02/28)

구분	수혜처	기초	임상	금액
		금액	금액	
교외	한국학술진흥재단	506,024,000	706,826,016	1,212,850,787
	한국과학재단	290,000,000	127,199,999	417,499,999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10,999,998	475,845,004	586,845,0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5,500,000	223,006,999	458,506,999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65,000,000	0	165,000,000
	환경부	106,500,000	30,000,000	136,500,000
	질병관리본부	70,050,000	200,640,000	270,690,000
	기타기관(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청)	0	135,798,955	135,798,955
	임상연구비	0	726,325,070	726,325,070
교내연구비		20,00,000	180,000,000	200,000,000
합계		1,504,074,769	2,805,942,043	4,310,016,812

♣ 새 소식

1. 의과대학 소식

◆ 2006 의과대학 '졸업 후 행사' 개최



2006 의과대학 졸업 후 행사가 2월 26일(월) 본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졸업 후 행사는 본교 졸업식 후 의대졸업생만 따로 모여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 70여명

의 졸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 및 상장 수여식과 세계의사윤리선언식 순서, 의대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되어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이배용 총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의학과에서는 학사 87명 · 석사 31명 · 박사 10명이 배출되었으며, 학사학위 수여자 중 의과대학 대표상에 하유진, 김애다상에 정문정, 대한의사협회장상에 최유경, 대한의학회회장상에 홍연주, 동창회장상에 정현경 학생이 선정되어 수상하였고 최우등상 4명, 우등상 8명이 각각 수상했다.

◆ 의과대학-일본 의대들과 잇달아 국제 교류 협정 맺어



의과대학이 지난 1월 10일의 오사카 의과대학에 이어 3월 19일에는 동경여자의과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협정은 학생 · 교수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결 후 5년 동안 유효하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동경여자의과대학에서 자율선택 임상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경 체재 시 기숙사, 보험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 선출

3월 12일(월)에서 13일(화)까지 양일간 시행된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학생회장에 구현정 학생이, 부학생회장에 김이준 학생이 당선되었다. 총 264명의 유권자 중 179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득표수 119명(득표율 66.5%)으로 출범하게 된 39대 학생회 『Speak Up !』(회장, 부회장 외 8명)은 함께 하는 진로 탐색 (정보채자 발간), 안전한 실습환경 (실습안전지침), 학생 복지 확충 (증명서 발급기, 도서관 시간 개방 건의, 휴식 공간 확충) 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 전체 교수 PBL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 전체 교수 워크숍이 1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본교 이화-LG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PBL 튜터링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날 워크숍은 이순남 학장의 인사말과 PBL 일정 및 이화의대

PBL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한 조영주 교수의 발표로 시작하였다. 이어 'PBL에서 tutor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황영일 교수 (서울의대 해부학 교실)의 특강이 열렸고, PBL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이지수 교수의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시간으로 오전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오후에는 총 69명의 교수들이 7개조로 편성되어 소그룹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supervisor 책임 하에 교수들이 학생 · 튜터 역할을 분담하여 직접 PBL 수업을 시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 후 각 조에서 PBL 수업에 대한 장단점 등을 발표하였으며, PBL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다.

◆ 2006학년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EMC) 활동

이화해외의료봉사단 (EMC: Ewha Medical Care)이 2월 1일 발대식을 갖고 2월 3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교수 3명 (전윤식 · 한재진 · 신상진 교수), 의료원 직원 4명 (치과 전공의 · 치위생사 · 간호부 · 약제과), 학생 10명(의과대학생 5명 등), 의대미주 동창 2명 등 기타 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하노이 근교 오지에서 일반진료 활동과 썬손 자선병원(Ha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에서 특별 진료 활동을 하였다. 또한 지역 의료진을 위한 특강(정형외과)과 베트남 적십자사 및 자선병원과 지역 내 사회보건 교육 및 활동도 함께 하였다.

◆ BK21 사업단, 홈페이지 오픈

BK21 사업단(단장 최경규 교수)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으며(<http://medibk.ewha.ac.kr>), 4월 중 1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행·재정보고서(1차 및 2차분), 자체평가 보고서를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후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

◆ 2007 의사국가시험에 본교생 86명 합격

2007년도 제 71회 의사국가시험에 본교생 95명(재학생 87명, 졸업생 8명)이 응시하여 총 86명(재학생 83명, 졸업생 3명)이 합격하여 90.8%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 의학과 3학년 김현선 학생 등 독후감 공모 수상

의대생과 의사를 위한 독서캠페인 '책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 제9기 캠페인 독후감 공모에서 의학과 3학년 김현선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현선 학생은 <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를 읽고 투고하였으며 대상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4학년 김지원 학생이 <암피트리온> 독후감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제 2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및 자유연제 접수 안내

제 21차 의학교육학술대회(한국의학교육학회 주최)가 '의학교육에서 학습부진의 현상과 대책'을 주제로 오는 5월 31일(목)부터 6월 2일(토)까지 열릴 예정이다. 자유연제 초록은 3월 12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한국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 (www.ksmed.or.kr)에서 접수 가능하다.

2. 교수 동정

◆ 강덕희 교수, 의학연구업적보고서 피인용지수 4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학연구업적보고서 2006'에서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의 논문이 전세계적으로 50회 이상 인용돼 피인용지수 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강교수의 논문 2편은 지난 1974년~2004년 31년간 발표된 국내 SCI 의학논문 중 국제적으로 50회 이상 인용된 논문에 포함되었다.

◆ 김영주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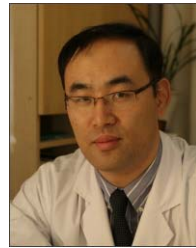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7년 Science and Engineering판에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될 예정이다. 김영주 교수는 임신성 고혈압 유전자 및 기전 연구와 관련된 SCI논문 30여편 및 그동안 대한산부인과 학회, 태아의학회, 주산기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았으며 2006년도 이화 베스트 닥터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보건복지부, 학술진흥재단 등 다수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활발한 연구중에 있다.

◆ 심봉석·강덕희 교수, 공동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비뇨기과 심봉석 교수연구팀과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비뇨기과 제58차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주제 : 만성 신장질환과 연관된 남성 성활동도 장애의 분석)

◆ 주웅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의학분야 유망주로 등재



산부인과 주웅 교수가 각 분야의 기대주로 손꼽히는 40대 이하 남녀 2만5천명의 이름을 실은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에서 의학분야 유망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웅 교수는 최근 2년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10여 편의 논문과 미국암연구학회(AACR) 젊은연구자상, 아시아오세아니아산부인과학회(AOCCOG) 젊은 산부인과 의사상 수상 경력 등을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 하은희 교수, WHO 5th PREBIC meeting 발표 예정



하은희 교수가 스위스 제베바에서 오는 4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열리는 WHO 5th PREBIC (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meeting에 temporary adviser로 초빙되었다. 하은희 교수는 "Air pollution and preterm birth in Korea" 발표 및 자문 위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서현숙 목동병원장 연임



서현숙 이대목동병원장이 2월1일자로 제6대 목동병원장에 연임됐다. 서 원장은 지난 재임기간 동안 특유의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목동병원의 별관동과 건강증진센터를 준공했으며, 의료기관평가 상위 10대 우수병원 선정 등 진료, 연구,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병원의 내실을 도모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연임되었다.

♣ 동창회 소식

◆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열려



의과대학동창회는 2월 27일 오후 5시 의과대학 의과관 A동 608호 동창회사무실에서 200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최보원 (18회, 최보원산부인과원장) 동창회장학위원장과 김화숙 (20회, 김화내과원장) 동창회장, 이경자 (24회, 이대 방사선종양학) 동창회부회장, 이순남 학장, 양현종 학생부장, 김승정 학생부차장과 장학금을 기부한 조종남 (24회, 조윤희산부인과의원) 원장, 오혜숙(27회, 오혜숙산부인과의원) 원장, 최혜영 (27회, 이대 진단방사선과학)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수혜학생 8명에게 1,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열심을 다해 참의사로서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고 실력 있는 좋은 의사가 되어 주길 당부하였다.

♣ 알려드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medicine.ewha.ac.kr>)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동창 주소 변경 문의 (Tel: 02) 2650-5782)

심장내과 정익모 교수

워싱턴주 시애틀은 나에게 있어서는 잊혀 질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역으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그 때문인지 나무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호수와 어우러지며 대기가 청명하다. 이곳에 위치한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은 미국 내에서 특히 기초학 분야가 매우 강한 대학으로 워싱턴 호수를 옆에 두고 있다.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병원에 임용되기 전 이 곳 병리학교실에서 전임의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혈관 성형술을 많이 하였지만 늘 동맥경화가 어떠한 기전으로 발생하고 진행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였고 근본을 알아야 질병의 치유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임의를 마친 후 미국 보스턴과 시애틀에서 혈관분야의 병리학을 공부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전하였던 전임의 시절 3년은 언어와 새로운 학문분야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른 충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었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 일군 작은 성취는 나에게 자신감과 그리고 원하던 분야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만족과 자위를 주게 되었다.

1997년 봄 귀국하여서 동대문 병원에서 교직을 시작한 8년 동안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많은 이웃 기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애틀에서 시작한 일들이 조금씩 느리지만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동대문 병원의 신경과학 연구소와 더불어 같이하였던 지난 4년 동안 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육체에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2005년 드디어 오래 기다렸던 연구년을 맞게 되었다. 연구년은 나에게 머리를 식히는 기회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나에게 남은 일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지를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싶었다. 혈관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공격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예방과 치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졌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병리학교실의 Stephen M Schwartz 교수는 유태인 병리학

자로 나의 이전 미국에서의 fellow 시절 지도 교수이셨으며 vascular biology분야의 현존하는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 이번에도 이 분의 연구실에서 연구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 분의 학식은 늘 깊이 있고 폭넓어 늘 나는 이 분을 큰 산을 대하듯이 존경하였다. Schwartz교수는 나에게 윤리적으로 매우 유태인들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세상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지켜 나아가야 할 덕목이 요즘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에 떠밀려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든다.

이번 연구년에는 스트레스와 혈관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으나 미국에서 이 분야를 만족할 정도로 찾아가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 대신 스트레스와 깊이 연관된 호르몬인 angiotensin의 신호전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regulator of G protein signaling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실은 벌써 40대 중반이 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연구년을 보내는 것이 좋을 지가 사실 처음의 고민이었으나, 결국 초심자의 마음으로 기본적인 연구자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함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실 다른 복잡한 걱정하지 않고 과제만 공부하고 진행시키는 일을 하니 마음은 편안하였다.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상당부분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이 중에는 외국 임상의 사들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과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정말로 성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동양권의 미덕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깊이 느꼈다.



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시애틀 지역의 Mercer Island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곳은 유태인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육환경과 자연환경 그리고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었다. 이곳에 있는 Luther park는 워싱턴호수의 전경과 시애틀 도심의 빌딩이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으로 틈틈이 가족과 함께 나가서 자연을 감상하고 운동을 하였던 곳이다. 워싱턴 호수를 지날 때 남쪽으로 보이는 만년설이 덮인 Mountain Rainier는 정말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산을 올라가면 시간대에 따라서 산의 빛이 신비스럽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생각에 미국의 장점은 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종을 끌어들이 수 있는 흡인력인 것 같다. 이러한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게 하는 흡인력은 적어도 미국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교육 연구 분야가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연구년을 다녀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신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병원 직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미국에서의 연구년 기간 동안의 노력이 기관과 한국 의료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